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강지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24년 2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지도교수 김 상 미

강 지 희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강지희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남진열	
위 원	고관우	
위 원	김상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4년 2월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ang, Ji-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M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4.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 < 목 차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도 .....	5
1) 진로성숙도 개념 .....	5
2) 진로성숙도 구성요소 .....	6
2. 긍정심리자본 .....	8
1) 긍정심리자본 개념 .....	8
2)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소 .....	11
3. 사회적지지 .....	12
1) 사회적지지 개념 .....	12
2) 사회적지지 구성요소 .....	15
4. 주요 변수 간 선행연구 고찰 .....	17
1)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	17
2)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 .....	19
3)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 .....	20
4)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변수 .....	22

## III.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24
2. 연구대상 .....	26
3. 측정도구 .....	26
1) 독립변수: 긍정심리자본 .....	27

2)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	28
3) 매개변수: 사회적지지 .....	29
4. 자료분석 .....	30

####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1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	32
3. 주요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	34
1)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긍정심리자본 차이분석 .....	34
2)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사회적지지 차이분석 .....	36
3)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	38
4. 상관관계분석 .....	40
5. 가설검증 .....	43
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	43
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43
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44
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확정도에 미치는 영향 .....	46
5)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확정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46
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독립도에 미치는 영향 .....	48
7)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독립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48
8)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타협도에 미치는 영향 .....	50
9)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타협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50
10)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직업선택태도에 미치는 영향 .....	52
1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직업선택태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52
1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	54
1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여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54
6. 가설검증 요약 .....	56

## V. 결론 및 논의

1. 연구요약 및 결론 .....	57
2. 제언 .....	60
참고문헌 .....	62
부록 .....	72

## <표 목차>

<표 1> 연구자별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	7
<표 2> 연구자별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정리 .....	10
<표 3> 연구자별 사회적지지의 개념정리 .....	14
<표 4> 사회적지지 구성요소 .....	16
<표 5>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26
<표 6>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27
<표 7> 진로성숙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28
<표 8>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29
<표 9> 연구대상의 통계학적 특성 .....	31
<표 10> 주요변수 기술통계 .....	33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긍정심리자본 차이 .....	34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차이 .....	35
<표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사회적지지 차이 .....	36
<표 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차이 .....	37
<표 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진로성숙도 차이 .....	38
<표 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차이 .....	39
<표 17>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	42
<표 18> 진로성숙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45
<표 19> 진로확정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47
<표 20> 진로독립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49
<표 21> 진로타협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51
<표 22> 직업선택태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53
<표 23> 진로관여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55
<표 24>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	56



## <그림목차>

[그림 1] 자본개념의 흐름 .....	9
[그림 2] 연구모형 .....	25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강 지 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 상 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 관계를 분석하고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제주도 소재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응답자 269명의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SPSS 24.0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뢰도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차이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낙관주의에서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집단이, ‘비가구주’ 대학생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지지에서는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비가구주 대학생’이 사회적지지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진로타협도와 직업선택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집단이, ‘비가구주’ 대학생이 비교집단보다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 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 중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사회적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긍정심리자본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섯째,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의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를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사회적지지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지도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대학생,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사회적지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과업이자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다(김민영, 2018). 진로 선택은 삶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진로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준비하는 대학생은 직업인으로서의 준비하는 단계로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장계영·김봉환, 2009). 우리나라 중등 교육은 주로 대학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박윤희, 2022).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가중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곽수미, 2019).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교육 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확인해 본 결과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실업률이 48%로 가장 높았다(통계청, 2020). 이는 고학력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김혜진, 2022).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직장탐색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오삼일·이상아, 2021). 이러한 결과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어렵게 취업 했더라도 직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직 및 취업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나타내며, 대학생의 미래 진로설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권경미, 2019).

사회생활을 앞둔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적성과 능력을 찾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문제로 여겨진다(송연재, 2021). 과거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전공과 직업에 대한 불일치율이 OECD 2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낸다(Momtt, 2015; 강선아, 2023 재인용). 현대사회는 4차 산업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어 직업 다양성이 높아지고 기회의 폭은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의 불

확실성과 우리나라 고용시장 및 사회적 상황은 진로와 직업의 구체화를 위해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박종옥, 2016; 김연숙, 202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년 제주도내 대학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제주지역 대학의 입학생 수와 졸업생 수를 비교해보면 남녀 입학생의 수는 비슷하지만 졸업생의 수는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18년 대졸 여학생 취업률은 57%, 대졸 남학생 취업률 64.5%로 여대생의 취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430개 대학이 존재하며, 이 중 105개 대학에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4개 대학 중 1개 대학에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제주 지역 대학생들의 진로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시사한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2021년 인재개발 정책포럼 자료집에 의하면 대학생의 약 73.2%가 대학 진로 및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2021). 또한 통계청 청년패널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졸 이상의 81.6%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미결정이거나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6년 40.4%에서 2018년 45.7%, 2019년 32.6%으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53.6%로 대폭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통계청, 2022).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시장,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한 취업기회의 감소는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여 진로 선택의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이보영, 2019).

실제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보고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진로·취업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호소하는 주요 영역도 취업문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경미, 2016; 김예인, 2023; 김은지, 2023; 이은아, 2023).

이에 진로·취업 스트레스가 심한 대학생들은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나 진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진로 발달 전환기 시점에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진로 불확실성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은지, 2023).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진로와 관련한 변인은 주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외부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성별, 연령,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포함하고, 부모 교사, 동료, 또래 등을 둘러싼 환경적 특징을 포함한다. 내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내면 심리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긍정심리자본, 희망, 그릿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적인 요인은 개인의 특성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진로 결정과 진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강선아, 2023).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적요인 보다 내적요인이 진로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역할로 진로결정 수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선아, 2023; 장진범, 2023).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등 네가지 변수들을 통합한 상위요인으로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Luthans, 1998; 이유경, 2021 재인용). 최근 대학에서는 인재개발 전략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전혜지, 2020). Saka, Gati, and Kelly(2008)의 진로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상태가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진로 결정 어려움에 있어서 심리적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김하영, 2023 재인용).

이유경(2021)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진로에 대한 계획수립과 목표설정, 실행방안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여 재도전할 수 있다고 보며, 대학생의 진로 관련 변인 중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종원, 2014; 권경미, 2016; 이정임, 2016; 박인숙·안성식 2019; 김혜진 2022).

Betz(1989)는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인으로 보았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환경에 따라 진로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와 환경적 요인이 진로 선택,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명숙, 2014).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으로서 진로·취업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 되기도 한다(이정임, 201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종원(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경미(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진로관여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인숙과 안성식(2019), 김혜진(202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순자(2021)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요소들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연주(2021)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매개역할이 있음을 밝히며,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지지 강화를 위한 체계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진출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들 중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는 대학생의 진로문제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매개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내부적 요인인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외부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지지를 매개효과로 설정하여 사회적지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여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성숙도

#### 1) 진로성숙도의 개념

진로성숙도란 직업적 삶을 폭넓게 보는 능력과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진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기인식, 결단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을 의미한다(신영인, 2023).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이론 중 발달론적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Super(1953)와 Crites(1961)는 진로성숙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이다(염경혜, 2018).

진로성숙의 초기 연구자인 Super(1954)는 성장기부터 쇠퇴기까지의 개인의 진로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고 변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Super(1954)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성숙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인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에 대해 소개한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진로성숙이란 개념이 상위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현옥, 1989; 염경혜, 2018).

Crites(1961)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진로결정 및 진로개발 등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 행동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강우훈, 2022).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진로결정수준에 관해서는 Ginzberg 외(1951)의 학자가 직업선택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진로선택과 그리고 성인 시기의 실제 진로 구체화 단계 등 오랜 과정을 거쳐 진로와 관련된 경험과 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총체적인 성과이므로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진로성숙도의 개념은 194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 행동에 대하여 연구가 시작되고, 1950년대 발달이론가들의 직업 선택에 관한 연구에 의하여 발달된 개념이다. 그중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결정하는 삶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로 해결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진로성숙도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박미연, 2011; 이보영, 2019). 이에 본 절에서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의를 종합해 진로성숙도(Carrer Maturity)를 ‘개인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와 진로발달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여 진로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있는 수준’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 진로성숙도 구성요소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은 학자마다 다양한 측정 도구를 통해 진로성숙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특성과 연령층 구분에 따라 구체화된 도구들이 개발된다(김혜진, 2022). Super(1957)는 진로성숙도를 진로 발달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적 발달과정으로, 진로 발달 검사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CDI 검사 도구는 진로 발달 및 성숙에 대해 측정을 통해 진로상담에 필요한 영역을 찾고,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다. 진로 계획, 진로 탐색, 진로 의사결정,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하였다.

Crites(1971)는 Super(1957)의 진로 이론을 기초로 진로 선택의 일관성을 나타내고 연령척도(age sale)와 점수척도(point sale)를 모두 고려한 진로성숙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도구를 개발하였다. CMI 척도는 진로 선택 태도에 중점을 둔 구성요소로 태도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분되며 태도척도에는 결정성, 개입성, 독립성, 지향성, 을 포함하며 능력 척도에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장석민(1991)이 CMI 모델을 기초로 한국형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고, 태도척도와 능력 척도를 구분하였다. 태도척도는 일에 대한 태도 관점을 분석할 때 유용한 척도로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이 포함되어있고, 능력 척도는 직업 세계이해 능력, 의사결정능력, 직업 선택 능력을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기학(1997)은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소는 개인이 진로를 선택할 때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목적성 차원으로 변형

하였고, 우리나라 문화를 적절히 반영한 모형으로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5가지 요소로 설정하여 진로성숙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검증하였다.

임언 등(2001)도 기존의 진로성숙도 검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태도와 능력 및 행동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태도 영역에는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요소를 포함하였고, 자기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지식을 능력영역, 그 외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으로 구분 하였다.

강유리(2006)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직업에 대한 준비 정도와 대처 능력을 나타내는 진로성숙도를 모색하고자 이기학(1997)이 변안한 한국형 CMI의 태도척도 가운데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된 상담용 척도의 진로성숙 검사지를 토대로 진로 확정도, 진로 독립도, 진로 타협도, 직업 선택 태도, 진로관여도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1>과 같이 연구자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약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진로성숙도 태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유리(2006)의 연구를 토대로 진로성숙도를 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진로타협도, 진로관여도, 직업선택태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자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연구자	검사명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인지적 능력	태도	행동
Super (1957)	CDI	진로 의사결정, 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계획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Crites (1971)	CMI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문제해결	결정성, 개입성, 독립성, 지향성	
장석민 (1991)	진로성숙도 검사	직업세계이해, 의사결정 직업선택능력,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이기학 (1997)	진로성숙도 검사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임언외 (2001)	진로성숙도 검사	자기이해, 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강유리 (2006)	진로성숙도 검사		확정도, 독립도, 타협도, 관여도 직업선택태도	

출처 : 김세연(2023) 연구를 본 연구에서 재구성

## 2. 긍정심리자본

### 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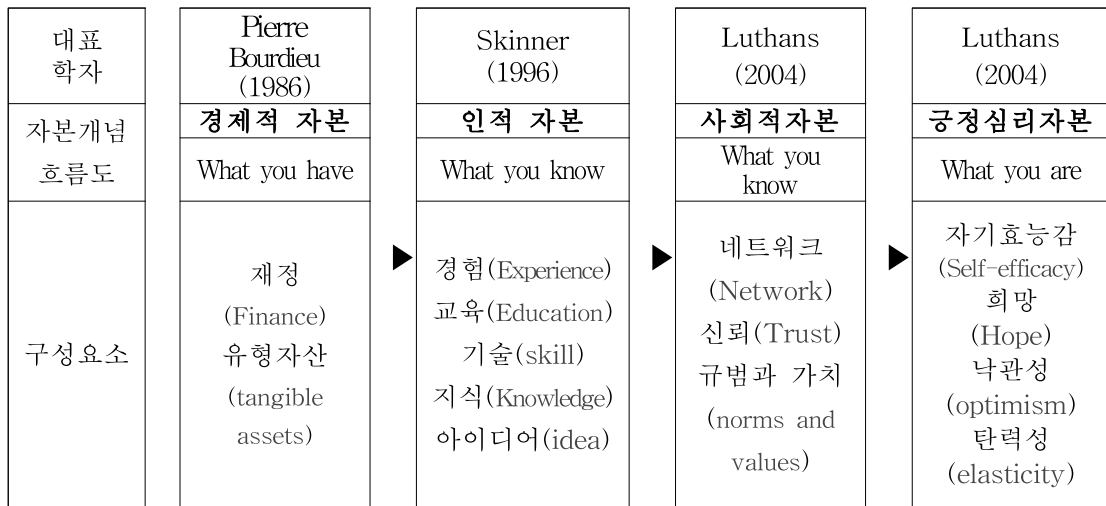
자본의 개념은 초기 Pierre Bourdieu(1986)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자산, 자본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경제적·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자본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의 자질도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자본의 개념이 확장되었다(이정일, 2016; 채상명, 2016).

Skinner(1996)는 인간 또한 하나의 자본이므로 그 투자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이후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김성훈, 2014).

긍정심리자본은 미국의 심리학자 Martin E. P. Seligman(199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심리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Luthans(2004)는 각 개인이 나타내는 특성들을 체계화하여 사회적자본과 긍정심리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본 개념의 중요성 측면에서 전통의 경제자본 보다는 인적자본 즉, 인간의 지식·기술·경험·아이디어·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더 우위에 있으며 협업의 요구성에 의한 사회적관계, 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자본과 그보다 한 단계 더 확장된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자본유형을 무형자본과 유형자본으로도 구분하여 무형자본의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권경미, 2016; 김옥진, 2016).

긍정심리자본은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란 핵심 물음을 통해 인간의 긍정적 심리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있다(Luthans, 2004; 이순늬·김정아, 2017 재인용).

[그림 1]과 같이 확장의 과정을 거쳐 긍정심리자본 개념이 정립되었다(채상명, 2016; 탁하연, 2017; 김혜진, 2022).



출처: 채상명(2016) 연구를 본 연구에서 재구성

[그림 1] 자본개념의 흐름

Luthans(2004)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 상태는 조직의 자본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긍정적인 심리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대신 현재 지닌 장점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찾아 능력을 재발견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심리는 개인과 조직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유현숙, 2004).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측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 관리자는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조직의 관리자들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던 기존 심리학의 한계와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정민철, 2011).

개인이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로 관련 스트레스 및 심리적 외상(trauma)의 발생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긍정심리자본이다(김혜진, 2022).

긍정심리자본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념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수행에 낙관적이며,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그 과정의 발생하는 문제에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자본을 말한다(탁하연, 2021).

앞에서 살펴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 연구자별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정의

연구자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정의
Seligman (1998)	긍정심리학을 처음 언급한 학자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심리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자본이다.
Luthans (2004)	긍정심리자본은 ‘당신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발전된 개념으로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이다.
유현숙 (2004)	불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대신 현재 지니고 있는 장점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찾아 능력을 재발견하고 확장하는 것이 긍정심리자본이다
정민철 (2011)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측정하고 발전시키며 조직 관리자의 활용에 따라 효율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탁하연 (2021)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심리적 자본이다.
김혜진 (2022)	개인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본을 말한다.

출처 : 유현숙(2004) 연구를 본 연구에서 재구성

## 2)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긍정심리자본은 일상 속 다양한 도전적 과업에 성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서 개인의 목표달성, 성취 등의 과업이 많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삶의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탁하연, 2021).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은 잠재성을 가진 구성개념들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나 Luthans, Youssef and Avolio(2007)은 개인수준의 속성이 긍정심리자본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에 의해 제외되었다.

첫째, 조건으로 부정적인 개념인 소진, 스트레스, 의존 등을 제외하여 긍정적인 요소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둘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와 개선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셋째, 개인의 지적능력, 재능 등의 개인의 성향·기질적 특성은 포함되지 않는다(장현정, 2021). 제시된 기준에 의해 잠재변인들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개념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네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탁하연, 2021).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동기부여가 된 노력과 인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긍정적인 개인의 믿음인 낙관주의(optimism), 미래 성공을 위한 희망(hope), 문제상황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총 네 가지의 구성요인으로 형성 되어있다(김혜진, 2022).

긍정심리자본의 네 가지의 구성요인은 서로 상호보완적일 뿐 아니라 상호의존적 요소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과정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는 자기효능감, 낙관성, 탄력성 4개의 구성개념으로 확립되었다(탁하연,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 3. 사회적지지

#### 1) 사회적지지 개념

사회적지지는 사회환경과 개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진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학자인 Caplan(1974)가 사회적 지지체계는 가족, 동료 등의 지속적인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랑과 친밀감, 애정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허성은, 2021).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에서 대두되어 확산 되었으며, 이때 사회적지지를 대상자로부터 자신이 배려, 존중,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며 상호 의사소통의 행위라고 하였다(이종원, 2014).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Cobb(1976)은 사회적지지만 가족 구성원, 직장동료를 포함한 주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사회관계의 유대감을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느끼게끔 하는 자신감의 지각 정도를 말한다(김희정, 2019; 이미경, 2020).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환경에 대한 정보, 정서적인 관심과 도구적인 도움, 유효한 원조, 평가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관계라고 하였다(박인숙·안성식, 2019). Cohen and Syme(1985)는 사회적지지를 타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으로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우석, 2009).

국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사회적지지 척도를 개발한 박지원(1985)의 연구를 기점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1985)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지지 개념적 정의를 분석하였다. 사회적지지를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상황에서 제공되는 지지의 정도,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 구성원을 통해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와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하여, 사회관계와 유대감, 친밀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미경(2020)는 사회적지지를 ‘지지의 원천으로 지각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보호와 애정을 통해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영선(2010)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교사, 또래친구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이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지의 정도로 개념화 하였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의 인적, 물적,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원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이종원, 2014).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초기에는 정서적 지지만을 강조하였지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심리학, 교육학, 예방의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면서, 이 개념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다기능적인 특성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에 많은 개념적 정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으며, 사회관계망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믿음을 형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은경·설현수, 2015).

인간은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관심, 사랑, 인정, 이해, 도움과 같은 욕구를 느끼며,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라고 한다(이성희, 2020).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에 대한 정의를 연구자마다 달리하고 있으며, 개념이 일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지지는 적극적인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고명숙, 2018).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지지는 대학생들의 환경, 대인관계에서 얻는 긍정적인 지지 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3> 연구자별 사회적지지의 개념정의

연구자	사회적지지의 개념정의	사회적지지 제공원
Caplan (1974)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 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자원	부부, 가족, 동료 지속적인 대인관계
Cobb (1976)	사회적지지만 사회관계 유대감을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느끼게끔 하는 자신감의 지각정도	가족, 직장동료를 포함한 주변인
House (1981)	환경에 대한 정보, 정서적인 관심과 도구적인 도움, 유효한 원조, 평가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대인관계
Cohen &Syme (1985)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공되는 긍정 자원	타인
박지원 (1985)	개인의 지지욕구를 반영한 사회관계와 유대감, 친밀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	사회관계 지지망
이종원 (2014)	개인의 인적, 물질, 주위 환경으로부터 제공 받는 모든 자원	개인주위환경
고명숙 (2014)	개인이 타인과의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	대인관계
유은경· 설현수 (2015)	주변사람들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으며 사회관계망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제공	주변 사람들
이미경 (2020)	지지의 원천으로 지각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보호와 애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존재를 인식하는 것	사회구성원

출처 : 고명숙(2014) 연구를 본 연구에서 재구성

## 2)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

사회적지지는 사회구성원이 제공하는 지지형태, 내용, 의도에 따라 유형 분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김영선, 2010). 사회적지지 초기 연구는 대부분 정서적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사회적 관계망 변화에 따라 정서적 기능뿐만 아닌, 수혜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므로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별로 학자마다 사회적지지 유형분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이주현, 2023). Cobb(1976)은 사회적지지를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지지, 상호의무가 있는 관계를 통한 신뢰의 정보적지지와 존경지지를 포함한 3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House(1982)는 존중과 신뢰 애정 등의 정서적지지, 필요에 따른 조언·제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물품·금전적 지원·서비스 등의 도구적지지,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인 평가적지지로 구성하였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사회적지지로 개념화하였다. Cohen and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 구성요소를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되는 자기존중감 지지와, 평가적지지, 여가 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소속감지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유형적지지로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Cantor(1991)는 사회적지지 제공 주체에 따라 가족, 친구 등의 그룹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비공식적인 사회적지지와 정부나 민간차원의 기관에서 교사, 의사, 복지사 등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적지지로 구분하여 제공 출처별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박지원(1985)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사회적지지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대표적인 검사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지지 총 4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자긍심과 자아정체감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김정희 와 이장호(1986)은 대인관계 지지 평가척도(Cohen & Hoberman, 1983)를 근거로 대학생의 평가적지지, 문제상황 속 직접적인 도움에 대한 물질적지지, 개인의 속 깊은 고민 등 타인과 공유하기 힘든 문제 의논에 대한 자존심지지로 구성하였다.

이혜진(2008)은 사회적지지 이론(Cobb, 1976)을 바탕으로 사회적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를 구성하여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김도희(2018)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총 세 개 요인을 활용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처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3가지 이상의 개념으로 유사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도희(2018)가 구성한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요인을 채택하고자 한다.

<표 4> 연구자별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연구자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도구적 지지	그외
Cobb (1976)	○	○				존경지지
House (1981)	○	○	○		○	
Cohen and Hoberman (1983)			○			자기존중감지지 소속지지 유형적지지
Cantor (1991)						비공식지지 공식적지지
박지원 (1985)	○	○	○	○		
김정희·이장호 (1986)			○	○		자존심지지
이혜진 (2008)	○	○	○			
김도희 (2015)	○	○	○			

출처 : 고명숙(2014) 연구를 본 연구에서 재구성

## 4. 주요 변수 간 선행연구 고찰

### 1)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사회적지지 관계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리자본임을 검증하였다(박인숙·안성식, 2019).

정은영(2013)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변인과 진로성숙도 하위 변인과의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역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 중 희망과 낙관성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관성은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적응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기엽(2012)의 연구에서도 희망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희망적 사고 증진이 필요하다고 제기 하였다.

김민영(2018)의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해 개인의 긍정심리자본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기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정문숙(2016)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고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낙관주의가 미래의 조직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내포하며, 진로관련 변수와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이정선·양지웅, 2013). 이는 낙관주의 성향이 있는 개인은 부정적

인 경험을 하더라도 이겨내고 회복하므로, 진로포부 형성을 위해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가지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장현정, 2021). 이유경(2021)의 연구에서는 심리자본은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순서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이 나타남을 보여주며, 대학생들의 자신 있는 진로관여행동을 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진로성숙도 등 진로발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변경미, 2021; 이영자, 2023). 이청화(2022)는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 전체에 정적인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세환(2019)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으로 볼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매개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대학생의 측면에서 진로성숙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이기엽, 2012).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지각하는 수준도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혜진, 2022).

이유경(2021)은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지지, 진로관여행동의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그 중 정서적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모두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이 많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와 평가 등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진로관여행동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양성운(2017)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강진(2020)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요한 주변 인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 스스로의 가치 있음과 존중을 인식하게 하며, 개인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되어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을 향상하는데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현경, 2023).

이청화(2022)는 사회적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직접적인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지지는 자신감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과업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경우 사회적 지지망을 많이 지각하게 되고, 사회적지지를 이끌어 내고 확보하여 긍정적인 심리자본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생이 심리자본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김혜진, 2022).

대학생이 주변의 사회적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면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은지, 2023).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Blustein(1997)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를 받는 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이루어낸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자존감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진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지지가 학생들이 진로결정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는데 기여 한다고 강조하였다.

Cohen and Hoberman(198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를 통해 제공되는 자원으로써, 개인의 발달을 촉진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지는 개인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적응 및 행동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정보적, 평가적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이영자, 2023). 반면에 전소연(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경화(2020)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는 발달 단계상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를 의미하여 주변인의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유열(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고등학생은 진로와 관

련된 자신감이 높아지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인 진로독립도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선택과정에서 편안하게 느끼고 진로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최유열, 2012).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전소연, 2015). 대학생의 성공 여부는 진로와 조직에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있으며, 이 능력은 개인의 진로성숙도에 기반 한다. 개인의 진로성숙도는 대학생 환경의 요구와 적절한 진로 대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권경미, 2016).

이청화(2022)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사회적지지는 교사, 친구,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진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진로성숙도에 부분매개의 영향도 확인하여 초등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선순자(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은지(202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선택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달성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자심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매개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생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및 관계를 알아보  
고자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Ginzberg(1951)에 의하면 대학생은 진로 발달단계에서 현실적 직업선택 단계에  
속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며, 개인의 흥미, 능  
력 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현실적 요인  
들을 고려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선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  
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현실적인 개인의 문제나 정서적인 불안정 등을 극  
복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진로성숙을 이루어나간다고 볼 수 있다.

super(1953)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대학생은 발달단계 탐색기에 해당이 되며,  
탐색기의 세 단계, 잠정기(15세-17세), 전환기(18세-21세), 시행기(22-24세) 중  
서 대학생 시기에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으며 직업 선택을 해나가는 시기라  
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은 학기와 학년 단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  
생들의 인지적·정서적 특성 및 행동도 일련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대  
학생 진로 관련 연구 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진희, 2009; 이승수·박소희, 2012).

국내 연구에서는 신현균, 장재윤(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졸업을 앞둔 대학  
생의 불확실한 취업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성별이나 성격특징에 따라 취업에 대  
한 걱정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유리(2007)은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연구를 통해 개인적 특성(학년,  
성별, 가정형편 등)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의 정도와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가정형편과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따  
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연구로 장휘숙(2009)은 청년들의 경제상황이  
악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발달과업의 필요한 준비과정에서 적절한 목표를 성취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에서도 확  
인되고 있다. 청년들(15세29세)의 경제고통지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 시대 청년·대학생의 어려움은 취업에만 국  
한되어 있지 않고 가정환경, 주거, 부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청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지지를 얻어야 하는 청년기에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존감 등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청년기의 사회적지지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정승원, 202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정보에 대해 불충분하다며,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고학년일수록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의 효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김희선, 1999; 장은영, 2000). 김희수(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통해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심리적·개인적 차원의 긍정적인 변화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 목표설정의 행동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므로 대학시기 진로준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미영·이재신·이지혜, 2015). 또한 전문대학인 2·3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 한 연구에서는 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진로타협도, 직업선택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2·3년제 대학은 전공분야의 현장실습이 4년제 대학보다 시기가 빠르며 이에 따라 2·3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전공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겪는 과정을 통해 진로에 대한 내적준비와 자신감이 강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수민, 2013).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 학제, 가구주 여부, 진로취업교육 수강 여부는 대학생의 진로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은 성별과 학제,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 여부, 가구주 여부 총 4개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대학생의 교과목 수강 여부, 가구주 여부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때 사회적지지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대학생의 희망은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대학생의 낙관주의는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확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독립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타협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5.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직업선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4-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확정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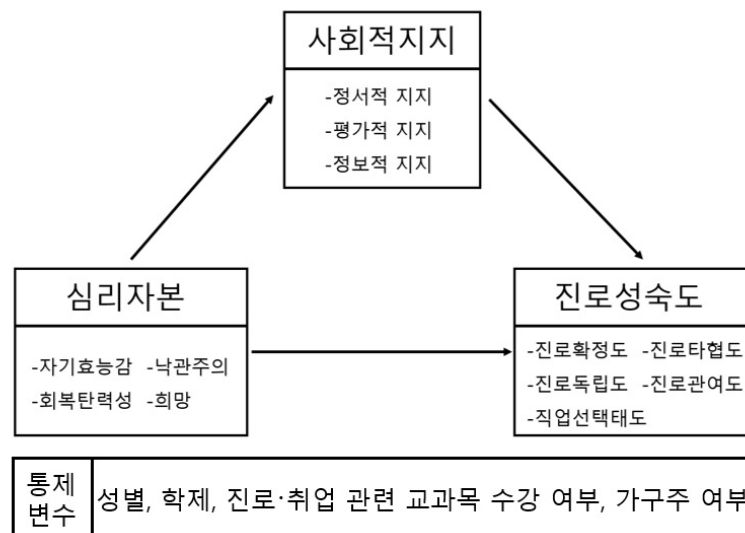
연구가설 4-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독립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타협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5.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직업선택태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여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모형



[그림 2]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2·3년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022년 12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설문 전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참여자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총 설문지는 남녀를 합해 총 269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 <표 5>와 같이 크게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5> 설문지 구성 및 내용

변수명	측정항목	문항 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학제,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가구주 여부	4문항
독립변수	긍정심리자본	17문항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30문항
매개변수	사회적지지	19문항
총 문항 수		70문항

## 1) 독립변수: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대학생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한 진취적 사고와 행동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을 포함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장진범, 2023).

이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2004)이 개발하고 유현숙(2004)이 변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5문항, 희망 5문항, 낙관주의 3문항, 회복탄력성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들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인 유현숙(2004)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0$ 으로 나왔으며, 이 연구에서 확인된 긍정심리자본의 신뢰도는 <표 6>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Cronbach's  $\alpha$ 는 자기효능감 .835, 희망 .840, 낙관주의 .878, 회복탄력성 .841, 전체 .882로 나타났다.

<표 6>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구성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선행연구	본연구
자기효능감	31, 32, 33, 34, 35	5	.780	.835
희망	36, 37, 38, 39, 40	5	.820	.840
낙관주의	41, 42, 43	3	.690	.878
회복탄력성	44, 45, 46, 46	4	.798	.841
전체		17	.820	.882

## 2)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대학생이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진로 목표 설정에 필요한 ‘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진로타협도’, ‘직업선택태도’, ‘진로관여도’를 포함한 진로행동능력으로 정의하였다(강선아, 2023).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척도를 강유리(2006)가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진로타협도, 직업선택태도, 진로관여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진로확정도 8문항, 진로독립도 8문항, 진로타협도 6문항, 직업선택태도 5문항, 진로관여도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문 문항으로 이루어진 하위 요인들은 역채점 하였다.

선행연구인 강유리(2006)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8으로 확인되며, 이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는 <표 7>와 같다. 진로 성숙도의 Cronbach’s  $\alpha$  는 진로확정도는 .669, 진로독립도 .734, 진로타협도 .692, 직업선택태도 .778, 진로관여도 .750, 전체 .772로 나타났다.

<표 7> 진로성숙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구성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선행연구	본연구
진로확정도	1*,2*,3*,4*,5*,6, 7*,8*	8	.807	.669
진로독립도	9*,10, 11*,12, 13*,14, 15*,16*	8	.719	.734
진로타협도	17, 18, 19*,20*,21*,22*	6	.704	.692
직업선택태도	23, 24*, 25, 26*, 27*	5	.625	.778
진로관여도	28, 29*, 30*	3	.562	.750
전체		30	.788	.772

### 3) 매개변수 :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대학생생활이나 사회환경 등 다양한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구성원을 통해 제공 받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를 포함한 자원으로 정의하였다(박지원, 1985).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김도희(2018)가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4문항, 정보적지지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인 김도희(2018)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0$ 이며,

이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는 <표 8>와 같다. 사회적지지의 Cronbach's  $\alpha$ 는 정서적 지지는 .816, 평가적 지지는 .885, 정보적 지지는 .829, 전체 .888로 나타났다.

<표 8>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구성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선행연구	본연구
정서적 지지	48, 49, 50, 51, 52, 53, 54	7		.816
평가적 지지	55, 56, 57, 58	4	.910	.885
정보적 지지	59, 60, 61, 62, 63, 64, 65, 66	8		.829
	전체	19		.888



####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성숙도,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들(진로성숙도,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소재 2·3년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10> 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49.8%, 여학생이 50.2%으로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학제별 분포는 2·3년제 36.4%, 4년제 63.6%로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학생 참여비율이 높다. 진로 교과목 수강 여부에 관한 응답은 수강 경험 있는 학생이 57.6%,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이 42.4%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응답에 75.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가구주인 경우는 24.5%에 불과했다.

<표 9> 연구대상의 통계학적 특성

(N=269)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34	49.8
	여	135	50.2
학제	2,3년제	98	36.4
	4년제	171	63.6
진로 교과목 수강 여부	수강 경험 있음	155	57.6
	수강 경험 없음	114	42.4
가구주 여부	네 (가구주)	66	24.5
	아니오 (가구주 아님)	203	75.5

## 2. 주요변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 주요 변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전체 평균은 3.87점(SD=.602)이다.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희망 4.01점(SD=.616), 회복탄력성 3.87점(SD=.727), 자기효능감 3.79점(SD=.715), 낙관주의 3.74점(SD=.744) 순으로 나타나 희망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낙관주의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대학생 진로성숙도 전체 평균은 3.36점(SD=.578)이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진로독립도 3.77점(SD=.697), 진로관여도 3.40점(SD=.785), 직업선택태도 3.30점(SD=.519), 진로타협도 3.24점(SD=.655), 진로확정도 3.05점(SD=1.014) 순으로 나타나 진로독립도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진로확정도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대학생 사회적지지 전체 평균은 4.02점(SD=.635)이다. 사회적지지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평가적지지 4.03점(SD=.692), 정서적지지 4.02점(SD=.662), 정보적지지 4.01점(SD=.672)순으로 나타나 평가적지지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정보적지지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왜도의 값이 모두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7보다 작음으로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주요변수 기술통계

(N=269)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1.40	5.00	3.79	.715	-0.24	-0.57
	희망	2.40	5.00	4.01	.616	-0.33	-0.16
	낙관주의	1.67	5.00	3.74	.744	-0.28	-0.60
	회복탄력성	1.25	5.00	3.87	.727	-0.14	-0.74
긍정심리자본 전체		2.24	5.00	3.87	.602	-0.38	-0.28
진로성숙도	진로확정도	1.13	5.00	3.05	1.014	0.04	-0.88
	진로독립도	2.00	5.00	3.77	.697	-0.06	-0.68
	진로타협도	1.67	5.00	3.24	.655	0.29	-0.24
	직업선택태도	1.20	4.80	3.30	.519	-0.33	2.41
	진로관여도	1.00	5.00	3.40	.785	-0.21	-0.23
진로성숙도 전체		2.27	4.80	3.36	.578	0.25	-0.49
사회적지지	정서적 지지	1.29	5.00	4.02	.662	-0.51	0.54
	평가적 지지	2.00	5.00	4.03	.692	-0.48	-0.00
	정보적 지지	2.38	5.00	4.01	.672	-0.37	-0.40
	사회적지지 전체		2.16	5.00	4.02	.635	-0.40

### 3. 주요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 1)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긍정심리자본 차이 분석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와 같다.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차이

변수	구분	N	M	SD	t	p
성별	남	134	3.92	.58	1.352	.178
	여	135	3.82	.62		
학제	2,3년제	98	3.92	.68	.998	.320
	4년제	171	3.84	.55		
진로교과목 교육경험여부	유	155	3.92	.59	1.541	.125
	무	114	3.80	.62		
가구주 여부	유	66	3.84	.63	-.444	.658
	무	203	3.88	.60		

\*p<.05, \*\*p<.01, \*\*\*p<.001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위 <표 11>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학제와 가구주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낙관주의(t=2.17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년제(M=3.87, SD=0.79)가 4년제

(M=3.67, SD=0.71)보다 상대적으로 낙관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낙관주의( $t=-2.226$ ,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주가 아닌 집단(M=3.80, SD=0.74)이 가구주인 집단(M=3.57, SD=0.7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차이

변수	구분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N	M (SD)	t(p)	M (SD)	t(p)	M (SD)	t(p)	M (SD)	t(p)
성별	남	134	3.82 (0.71)	.613 (.541)	4.09 (0.57)	1.871 (.062)	3.76 (0.71)	.361 (.719)	3.95 (0.69)	1.756 (.080)
	여	135	3.77 (0.72)		3.95 (0.66)		3.73 (0.78)		3.79 (0.76)	
학제	2,3년제	98	3.84 (0.74)	.679 (.498)	4.04 (0.70)	.331 (.741)	3.87 (0.79)	2.174* (.031)	3.92 (0.77)	.817 (.415)
	4년제	171	3.77 (0.70)		4.01 (0.57)		3.67 (0.71)		3.84 (0.70)	
교육	유	155	3.85 (0.68)	1.507 (.133)	4.07 (0.60)	1.552 (.122)	3.77 (0.77)	.535 (.593)	3.93 (0.74)	1.509 (.133)
	무	114	3.72 (0.76)		3.95 (0.64)		3.72 (0.71)		3.79 (0.70)	
가구주	유	66	3.82 (0.81)	.217 (.829)	3.98 (0.63)	-.652 (.516)	3.57 (0.73)	-2.226* (.028)	3.91 (0.69)	.479 (.632)
	무	203	3.79 (0.68)		4.03 (0.61)		3.80 (0.74)		3.86 (0.74)	

\*  $p<.05$ , \*\*  $p<.01$ , \*\*\*  $p<.001$

## 2)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차이는 아래 <표 13>와 같다.

<표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사회적지지 차이

변수	구분	N	M	SD	t	p
성별	남	134	4.05	.60	.604	.546
	여	135	4.00	.67		
학제	2,3년제	98	4.03	.70	-.008	.994
	4년제	171	4.03	.60		
진로교과목 교육경험여부	유	155	4.12	.61	2.735**	.007
	무	114	3.90	.66		
가구주 여부	유	66	3.87	.70	-2.386*	.018
	무	203	4.08	.61		

\*  $p < .05$ , \*\*  $p < .01$ , \*\*\*  $p < .001$

위와 같이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가구주 여부로 분류한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제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분류한 집단 간 사회적지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 ( $t=2.735$ ,  $p < .01$ )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 $M=4.12$ ,  $SD=0.61$ )이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 $M=3.90$ ,  $SD=0.66$ )보다 사회적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 $t=2.386$ ,  $p < .05$ )로 가구주가 아닌 집단( $M=4.08$ ,  $SD=0.61$ )이 가구주인 집단( $M=3.87$ ,  $SD=0.70$ )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고 교육여부, 가구주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여부로 분류한 집단 간 차이는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정서적지지( $t=2.165$ ,  $p<.05$ ), 평가적지지( $t=2.660$ ,  $p<.01$ ), 정보적지지( $t=2.629$ ,  $p<.01$ ) 전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서적지지’는 교육받는 집단( $M=4.10$ ,  $SD=0.61$ )이 교육받지 않는 집단( $M=3.92$ ,  $SD=0.72$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적지지’도 교육받는 집단( $M=4.18$ ,  $SD=0.85$ )이 교육받지 않는 집단( $M=3.91$ ,  $SD=0.75$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보적지지’ 또한 교육받는 집단이( $M=4.11$ ,  $SD=0.67$ ) 교육받지 않는 집단( $M=3.98$ ,  $SD=0.6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로 분류한 집단 차이는 정서적지지( $t=-2.119$ ,  $p<.05$ )에서 가구주가 아닌 집단( $M=4.07$ ,  $SD=0.65$ )이 가구주인 집단( $M=3.87$ ,  $SD=0.69$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가적지지( $t=-2.031$ ,  $p<.05$ )도 가구주가 아닌 집단( $M=4.12$ ,  $SD=0.85$ )이 가구주인 집단( $M=3.89$ ,  $SD=0.7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적지지( $t=-2.001$ ,  $p<.05$ )에서도 가구주가 아닌 집단( $M=4.07$ ,  $SD=0.62$ )이 가구주인 집단( $M=3.85$ ,  $SD=0.79$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차이

변수	구분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N	M(SD)	t(p)	M(SD)	t(p)	M(SD)	t(p)
성별	남	134	4.05 (0.59)	.817 (.415)	4.06 (0.66)	.005 (.996)	4.04 (0.68)	.658 (=.511)
	여	135	3.99 (0.73)		4.06 (0.95)		3.99 (0.67)	
학제	2,3년제	98	4.01 (0.71)	-.279 (.781)	4.08 (1.07)	.177 (.860)	4.02 (0.72)	.105 (.916)
	4년제	171	4.03 (0.63)		4.06 (0.64)		4.01 (0.65)	
교육	유	155	4.10 (0.61)	2.165* (.031)	4.18 (0.85)	2.660** (.008)	4.11 (0.67)	2.629** (.009)
	무	114	3.92 (0.72)		3.91 (0.75)		3.89 (0.67)	
가구주	유	66	3.87 (0.69)	-2.119* (.036)	3.89 (0.71)	-2.031* (.043)	3.85 (0.79)	-2.001* (.048)
	무	203	4.07 (0.65)		4.12 (0.85)		4.07 (0.62)	

\*  $p<.05$ , \*\*  $p<.01$ , \*\*\*  $p<.001$



### 3)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진로성숙도 차이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는 <표 15>와 같다.

<표 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진로성숙도 차이

변수	구분	N	M	SD	t	p
성별	남	134	3.36	.58	.048	.961
	여	135	3.36	.57		
학제	2,3년제	98	3.40	.71	.784	.434
	4년제	171	3.34	.49		
진로교과목 교육경험여부	유	155	3.38	.54	.741	.459
	무	114	3.33	.63		
가구주 여부	유	66	3.30	.55	-1.015	.311
	무	203	3.38	.59		

\*  $p < .05$ , \*\*  $p < .01$ , \*\*\*  $p < .001$

위와 같이 진로성숙도 전체 변수를 활용할 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6>와 같고 학제, 가구주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제로 분류한 집단 간 차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직업선택태도’( $t=3.299$ ,  $p < .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2·3년제( $M=3.44$ ,  $SD=0.49$ ), 4년제( $M=3.23$ ,  $SD=0.52$ )로 2·3년제가 4년제보다 직업선택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서도( $t=-2.081$ ,  $p < .05$ ), 가구주가 아닌 집단( $M=3.29$ ,  $SD=0.66$ ) 진로타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 여부( $t=1.992$ ,  $p < .05$ )중 진로취업 교육수강을 한 집단( $M=3.49$ ,  $SD=0.82$ )이 진로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차이

번호	구분	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진로타협도		직업선택태도		진로관여도		
		N	M(SD)	t(p)	M(SD)	t(p)	M(SD)	t(p)	M(SD)	t(p)	M(SD)	t(p)
성별	남	134	3.04 (1.01)	-.237 (.813)	3.75 (0.73)	-.587 (.558)	3.24 (0.64)	-1.148 (.883)	3.31 (0.53)	.317 (.752)	3.53 (0.75)	2.487 (.014)
	여	135	3.07 (1.03)		3.80 (0.67)		3.25 (0.68)		3.29 (0.52)		3.29 (0.80)	
학제	2,3년제	98	3.16 (1.12)	1.170 (.244)	3.71 (0.83)	-1.022 (.308)	3.32 (0.73)	1.403 (.162)	3.44 (0.49)	3.299** (.001)	3.33 (0.89)	-1.127 (.261)
	4년제	171	3.00 (0.95)		3.81 (0.61)		3.20 (0.60)		3.23 (0.52)		3.45 (0.72)	
교육	유	155	3.10 (0.96)	.758 (.449)	3.76 (0.71)	-.364 (.716)	3.26 (0.65)	.577 (.564)	3.32 (0.43)	.714 (.476)	3.49 (0.82)	1.992* (.047)
	무	114	3.00 (1.09)		3.79 (0.68)		3.22 (0.67)		3.28 (0.62)		3.30 (0.73)	
가구주	유	66	2.96 (0.93)	-.880 (.379)	3.71 (0.78)	-.779 (.438)	3.10 (0.64)	-2.081* (.038)	3.40 (0.46)	1.802 (.073)	3.33 (0.86)	-.903 (.369)
	무	203	3.09 (1.04)		3.79 (0.67)		3.29 (0.66)		3.27 (0.53)		3.44 (0.76)	

\* p<.05, \*\* p<.01, \*\*\* p<.001

#### 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인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의 독립변수인 긍정심리자본,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매개변수 사회적지지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17>과 같다.

첫째, 대학생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독립변수인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낙관주의에서 ‘학제’( $r=-.132, p<.05$ )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구주 여부’( $r=.134, p<.05$ )에서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종속변수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서는 ‘직업선택태도’와 ‘학제’( $r=.207, p<.01$ )에서 가장 높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관여도’와 ‘교육여부’( $r=-.121, p<.05$ )에서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변수와 매개변수의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에서는 ‘진로 취업 교과목 수강여부’에서 ‘정서적지지’( $r=-.135, p<.05$ ), ‘평가적지지’( $r=-.153, p<.05$ ), ‘정보적지지’( $r=-.159, p<.01$ ) 모두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구주 여부에서는 ‘정서적지지’( $r=.132, p<.05$ ), ‘평가적지지’( $r=.121, p<.05$ ), ‘정보적지지’( $r=.137, p<.05$ ) 모두에서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독립변수인 긍정심리자본과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 $r$ )는 .491이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긍정심리자본과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 $r$ )는 .654이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 $r$ )는 .546이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의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과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모두의 상관관계에서 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긍

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자기효능감’과 ‘진로독립도’( $r=.470, p<.001$ )에서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과 ‘진로관여도’( $r=.127, p<.05$ )에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은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진로성숙도의 ‘진로확정도’와 ‘정서적지지’( $r=.491, p<.001$ )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관여도’와 ‘정보적지지’( $r=.256, p<.001$ )에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섯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도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인 ‘희망’과 ‘정서적지지’( $r=.599, p<.001$ )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과 ‘정서적지지’( $r=.459, p<.001$ )에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7> 주요 변수(하위요인)과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5.1	5.2	5.3	5.4	6	6.1	6.2	6.3	6.4	6.5	7	7.1	7.2	7.3	
1. 성별	1																			
2. 학제	-.044	1																		
3. 교육 여부	-.048	-.257**	1																	
4. 가구주 여부	.175**	-.055	.104	1																
5. 긍정심리자본	.082	.064	.095	-.028	1															
5.1 자기효능감	.037	.042	.093	.014	.903**	1														
5.2 희망	.114	.021	.095	-.040	.886**	.740**	1													
5.3 낙관주의	.022	.132*	.033	-.134*	.782**	.584**	.620**	1												
5.4 회복탄력성	.107	.051	.092	.029	.871**	.718**	.676**	.612**	1											
6. 진로성숙도	.003	.053	.046	-.062	.491**	.517**	.471**	.313**	.354**	1										
6.1 진로확정도	-.014	.075	.047	-.054	.420**	.444**	.381**	.282**	.315**	.904**	1									
6.2 진로독립도	-.036	-.068	-.022	-.052	.406**	.470**	.360**	.256**	.273**	.730**	.456**	1								
6.3 진로타협도	-.009	.090	.036	-.126*	.327**	.314**	.343**	.213**	.240**	.809**	.740**	.439**	1							
6.4 직업선택태도	.019	.195**	.046	.110	.345**	.279**	.375**	.209**	.316**	.520**	.428**	.248**	.275**	1						
6.5 진로관여도	.150*	-.073	.121*	-.059	.279**	.335**	.318**	.140*	.127*	.594**	.427**	.432**	.395**	.202**	1					
7. 사회적지지	.037	.000	.165**	-.144*	.654**	.588**	.594**	.577**	.506**	.546**	.475**	.408**	.416**	.378**	.310**	1				
7.1 정서적지지	.050	-.018	.135*	-.132*	.622**	.560**	.599**	.531**	.459**	.563**	.491**	.396**	.468**	.363**	.337**	.929**	1			
7.2 평가적지지	.000	.012	.161**	-.123*	.495**	.429**	.428**	.471**	.400**	.443**	.379**	.354**	.315**	.307**	.251**	.857**	.724**	1		
7.3 정보적지지	.040	.007	.159**	-.137*	.639**	.584**	.565**	.558**	.503**	.479**	.418**	.364**	.345**	.354**	.256**	.926**	.795**	.708**	1	

\* p<.05, \*\* p<.01, \*\*\* p<.001

1)성별: 남=1, 여=0, 2)학제: 4년제=1, 2·3년제=0, 3)교육경험: 없다=1,있다=0, 4)가구주: 아니오=1, 예=0

## 5. 가설검증

### 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표 18>에서 1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7.7%이며, F값이 26.285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진로취업 교육 수강여부( $\beta = .113$ ,  $p < .05$ )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구주 여부( $\beta = -.127$ ,  $p < .01$ )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영역 중에서 낙관주의( $\beta = .274$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271$ ,  $p < .001$ ), 희망( $\beta = .206$ ,  $p < .01$ ) 순으로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취업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일수록, 비가구주 대학생일수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희망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1, 2-2, 2-3은 채택되었다.

### 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표 18>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5%이며, F값이 12.039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 t통계량, p-value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해당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효능감( $\beta = .426$ ,  $p < .001$ ), 희망( $\beta = .240$ ,  $p < .01$ ) 순으로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다.

### 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표 18>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9%이며, F값이 14.180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 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정서적지지( $\beta = .370$ ,  $p < .001$ )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2단계  $\beta = .426 \rightarrow$  3단계  $\beta = .327$ )과 희망(2단계  $\beta = .240 \rightarrow$  3단계  $\beta = .120$ )은 모두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 정서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지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의 경우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지지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적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2.666( $p < .001$ )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4-1은 채택되었다.

<표 18> 진로성숙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사회적지지				독립 → 종속 :진로성숙도				독립 → 매개 → 종속 :진로성숙도				
	B	$\beta$	t		B	$\beta$	t		B	$\beta$	t	공차	VIF
통제변수	1.24		5.344***		1.56		6.382***		1.08		4.542***		
성별1)	.025	.019	.413		-.020	-.017	-.321		-.030	-.026	-.513	.918	1.08
학제2)	-.004	-.003	-.047		.041	.034	.491		.053	.044	.678	.555	1.80
진로취업교육경험3)	.146	.113	.352*		.010	.009	.158		-.036	-.031	-.586	.855	1.16
가구주여부4)	-.188	-.127	-.649**		-.076	-.057	-1.021		-.011	-.008	-.160	.858	1.16
독립변수	.242	.271	3.570***		.344	.426	4.827***		.264	.327	3.858***	.328	3.05
공정	.214	.206	2.773**		.225	.240	2.776**		.113	.120	1.446	.341	2.93
심리	.235	.274	4.355***		-.035	-.045	-.613		-.116	-.149	-2.121*	.474	2.10
자본	-.001	-.001	-.016		-.068	-.085	-1.033		-.052	-.065	-.847	.393	2.54
회복탄력성													
매개변수									.322	.370	4.038***	.280	3.56
사회적									.069	.098	1.305	.416	2.40
지지									-.018	-.021	-.241	.298	3.36
정보적													
지지													
$R^2$		.477			.295				.399			Durbin-Watson	
Adjusted $R^2$		.459			.270				.371			1.943	
F		26.285***			12.039***				14.180***				
Sobel's test Z = 2.666***													

\*p<.05, \*\*p<.01, \*\*\*p<.001

1)성별: 남=1, 여=0, 2)학제: 4년제=1, 2·3년제=0, 3)교육경험: 없다=1, 있다=0, 4)가구주: 아니오=1, 예=0



#### 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확정도에 미치는 영향

<표 19>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1%이며, F값이 7.694으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효능감( $\beta = .537, p < .001$ )이 진로확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진로확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확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2는 채택되었다.

#### 5)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확정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표 19>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6%이며, F값이 8.975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정서적지지( $\beta = .359, p < .001$ )가 진로확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2단계  $\beta = .537 \rightarrow$  3단계  $\beta = .286$ )은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 정서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확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지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이 진로확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적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2.537( $p < .01$ )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확정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4-2은 채택 되었다.

<표 19> 진로확정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 사회적지지				독립 → 종속 : 진로확정도				독립 → 매개 → 종속 : 진로확정도					
	B	$\beta$	t		B	$\beta$	t		B	$\beta$	t	공차	VIF	
통 제 변 수	1.24		5.344***		.370	.370	.816		-.372		-.818			
성별 <sup>1)</sup>	.025	.019	.413		-.056	-.056	-.482		-.073	-.036	-.663	.918	1.089	
학제 <sup>2)</sup>	-.004	-.003	-.047		.140	.140	.902		.159	.075	1.073	.555	1.802	
진로취업교육경험 <sup>3)</sup>	.146	.113	.352*		.045	.045	.370		-.024	-.012	-.207	.855	1.169	
가구주여부 <sup>4)</sup>	-.188	-.127	-.649**		-.117	-.117	-.849		-.014	-.006	-.108	.858	1.165	
독 립 변 수	.242	.271	3.570***		.537	.537	4.054***		.405	.286	3.121**	.328	3.053	
희 망	.214	.206	2.773**		.216	.216	1.439		.030	.018	.202	.341	2.931	
낙관주의	.235	.274	4.355***		-.016	-.016	-.152		-.141	-.103	-1.359	.474	2.109	
회복탄력성	-.001	-.001	-.016		-.053	-.053	-.438		-.024	-.017	-.204	.393	2.545	
매 개 변 수									.550	.359	3.628***	.280	3.568	
평 가 적 적 지 지									.066	.054	.659	.416	2.402	
정 보 적 적 지 지									-.022	-.014	-.149	.298	3.360	
$R^2$	.477				.211				.296				Durbin-Watson	
Adjusted $R^2$	.459				.184				.263					
F	26.285***				7.694***				8.975***				2.068	

Sobel's test Z = 2.537\*\*

\*p<.05, \*\*p<.01, \*\*\*p<.001

1)성별: 남=1, 여=0, 2)학제: 4년제=1, 2·3년제=0, 3)교육경험: 없다=1, 있다=0, 4)가구주: 아니오=1, 예=0

## 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독립도에 미치는 영향

<표 20>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6%이며, F값이 9.887으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효능감( $\beta = .512, p < .001$ ), 진로독립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 경우 진로독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독립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3는 채택되었다.

## 7)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독립도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표 20>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7%이며, F값이 9.005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평가적지지( $\beta = .167, p < .05$ )가 진로독립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2단계  $\beta = .512 \rightarrow$  3단계  $\beta = .459$ )은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 평가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독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적지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독립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추가적으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이 진로독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평가적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1.781( $p < .05$ )으로 매개효과 검증에 유의도( $\pm 1.96$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독립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4-3은 기각 되었다.

<표 20> 진로독립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 사회적지지				독립 → 종속 : 진로독립도				독립 → 매개 → 종속 : 진로독립도			
	B	$\beta$	t	VIF	B	$\beta$	t	VIF	B	$\beta$	t	VIF
(상수)	1.24		5.344***		2.34		7.716***		1.98		6.351***	
통제 변수	.025	.019	.413		-.064	-.046	-.816		-.067	-.048	-.876	1.089
	-.004	-.003	-.047		-.236	-.163	-2.264*		-.229	-.158	-2.245*	1.802
진로취업교육경험 <sup>3)</sup>	.146	.113	.352*		-.117	-.083	-1.450		-.160	-.114	-2.008**	1.169
가구주여부 <sup>4)</sup>	-.188	-.127	-.649**		-.044	-.027	-.475		.003	.002	.030	1.165
자기효능감	.242	.271	3.570***		.499	.512	5.641***		.448	.459	5.015***	3.053
희망	.214	.206	2.773**		.108	.095	1.071		.050	.044	.492	2.931
낙관주의	.235	.274	4.355***		.001	.001	.018		-.065	-.070	-.917	2.109
회복탄력성	-.001	-.001	-.016		-.138	-.144	-1.697*		-.139	-.145	-1.729	2.545
정서적지지									.120	.114	1.152	3.568
평가적지지									.142	.167	2.055*	2.402
정보적지지									-.003	-.003	-.030	3.360
$R^2$	.477				.256				.297			
Adjusted $R^2$	.459				.230				.264			
F	26.285***				9.887***				9.005***			
Sobel's test Z = 1.781												
Durbin-Watson 1.929												

\*p<.05, \*\*p<.01, \*\*\*p<.001

1)성별: 남=1, 여=0, 2)학제: 4년제=1, 2·3년제=0, 3)교육경험: 없다=1, 있다=0, 4)가구주: 아니오=1, 예=0

## 8)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타협도에 미치는 영향

<표 21>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9%이며, F값이 5.056으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 희망( $\beta = .272, p < .01$ ), 진로타협도에 정(+)<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이 높은 대학생일 경우 진로타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타협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4는 채택되었다.</sup>

## 9)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타협도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표 21>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7%이며, F값이 7.388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중 정서적지지( $\beta = .501, p < .001$ )가 진로타협도에 유의미한 정(+)<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의 2단계의 유의했던 독립변수 희망에서 진로타협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긍정심리자본에 해당하는 희망이 진로타협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적지지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것으로 검증되었다.</sup>

추가적으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이 진로타협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적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2.471( $p < .01$ )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타협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4-4는 채택되었다.

<표 21> 진로타협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지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 사회적지지				독립 → 종속 : 진로타협도				독립 → 매개 → 종속 : 진로타협도			
	B	$\beta$	t		B	$\beta$	t		B	$\beta$	t	VIF
통제 변인	1.24		5.344***		1.86		6.119***		1.38		4.585***	
성별 <sup>1)</sup>	.025	.019	.413	-.209	-.016	-.012	-.209	-.030	-.023	-.410	.918	1.089
학제 <sup>2)</sup>	-.004	-.003	-.047	.910	.095	.070	.910	.112	.082	1.138	.555	1.802
진로취업교육경험 <sup>3)</sup>	.146	.113	.352*	.614	.050	.038	.614	.014	.011	.182	.855	1.169
가구주여부 <sup>4)</sup>	-.188	-.127	-.649**	-1.924*	-.178	-.117	-1.924*	-.113	-.074	-1.278	.858	1.165
자기효능감	.242	.271	3.570***	1.640	.146	.159	1.640	.059	.065	.689	.328	3.053
희망	.214	.206	2.773**	2.870**	.289	.272	2.870**	.142	.133	1.443	.341	2.931
낙관주의	.235	.274	4.355***	-.779	-.055	-.063	-.779	-.129	-.147	-1.878*	.474	2.109
회복탄력성	-.001	-.001	-.016	-.263	-.022	-.024	-.263	.011	.012	.137	.393	2.545
정서적지지		.477		.149		.149		.495	.501	4.920***	.280	3.568
평가적지지		.459		.120		.120		-.016	-.020	-.235	.416	2.402
정보적지지		26.285***		5.056***		5.056***		-.085	-.087	-.881	.298	3.360
$R^2$									.257			
Adjusted $R^2$									.222			
F									7.388***			
Sobel's test Z = 2.471**												
Durbin-Watson												
1.692												

\*p<.05, \*\*p<.01, \*\*\*p<.001

1)성별: 남=1, 여=0, 2)학제: 4년제=1, 2·3년제=0, 3)교육경험: 없다=1, 있다=0, 4)가구주: 아니오=1, 예=0

## 10)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직업선택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22>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1%이며, F값이 7.661으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 희망 ( $\beta = .376, p < .01$ )이 직업선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이 높은 대학생일 경우 직업선택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직업선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5는 채택되었다.

## 1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직업선택태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표 22>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7.3%이며, F값이 7.998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는 직업선택태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이 직업선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직업선택태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4-5은 기각되었다.

<표 22> 직업선택태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지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독립 → 종속				독립 → 매개 → 종속					
	: 사회적지지				: 직업선택태도				: 직업선택태도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공차	VIF
통제변수	1.24		5.344***	1.79		7.722***	1.44		6.114***					
성별 <sup>1)</sup>	.025	.019	.413	-.054	-.052	-.902	-.061	-.059	-1.065	.269	.250	3.492**	.918	1.089
학제 <sup>2)</sup>	-.004	-.003	-.047	.268	.249	3.360**	.036	.036	.606	-.002	-.002	-.035	.555	1.802
진로취업교육경험 <sup>3)</sup>	.146	.113	.352*	.037	.036	.606	-.002	-.002	-.035	.192	.159	2.761**	.855	1.169
가구주여부 <sup>4)</sup>	-.188	-.127	-.649**	.138	.115	1.955*	-.116	-.159	-1.711	.253	.300	3.287**	.341	2.931
자기효능감	.242	.271	3.570***	-.046	-.064	-.681	-.132	-.190	-2.450**	.115	.161	1.893	.393	2.545
희망	.214	.206	2.773**	.317	.376	4.113***	.120	.153	1.524	.046	.072	.869	.416	2.402
낙관주의	.235	.274	4.355***	-.067	-.096	-1.245	.118	.153	1.563	.118	.153	1.563	.298	3.360
회복탄력성	-.001	-.001	-.016	.113	.158	1.807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R^2$	.477			.210			.273			Durbin-Watson				
Adjusted $R^2$	.459			.183			.239							
F	26.285***			7.661***			.7998***			1.980				

\*p<.05, \*\*p<.01, \*\*\*p<.001

1)성별: 남=1, 여=0, 2)학제: 4년제=1, 2·3년제=0, 3)교육경험: 없다=1, 있다=0, 4)가구주: 아니오=1, 예=0



## 1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표 23>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3%이며, F값이 7.782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효능감( $\beta = .426, p < .001$ )과 희망( $\beta = .218, p < .05$ )이 진로관여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 $\beta = -.290, p < .01$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의 경우 1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이기에 2,3단계 분석에 제외된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높은 대학생일 경우 진로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관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6는 채택되었다.

## 1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여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표 23>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1%이며, F값이 6.756로 추정된 회귀식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 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정서적지지( $\beta = .208, p < .05$ )가 진로관여도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2단계  $\beta = .426 \rightarrow$  3단계  $\beta = .398$ )과 희망( $\beta = .218 \rightarrow \beta = .163$ )은 모두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 정서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관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지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의 경우 진로관여도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지지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진로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적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1.754( $p < .05$ ) 로 매개효과 검증에 유의도( $\pm 1.96$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여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4-6은 기각되었다.

<표 23> 진로관여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지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 사회적지지				독립 → 종속 : 진로관여도				독립 → 매개 → 종속 : 진로관여도					
	B	$\beta$	t		B	$\beta$	t		B	$\beta$	t	공차	VIF	
(상수)	1.24		5.344***		1.66		4.728***		1.39		3.805***			
성별 <sup>1)</sup>	.025	.019	.413		.240	.153	2.668**		.237	.151	2.662**	.918	1.089	
학제 <sup>2)</sup>	-.004	-.003	-.047		.029	.018	.238		.042	.026	.354	.555	1.802	
진로취업교육경험 <sup>3)</sup>	.146	.113	.352*		.134	.084	1.430		.109	.069	1.164	.855	1.169	
가구주여부 <sup>4)</sup>	-.188	-.127	-.649**		-.205	-.112	-1.915		-.175	-.096	-1.630	.858	1.165	
자기효능감	.242	.271	3.570***		.468	.426	4.565***		.438	.398	4.187***	.328	3.053	
희망	.214	.206	2.773**		.278	.218	2.392*		.208	.163	1.747	.341	2.931	
낙관주의	.235	.274	4.355***		-.086	-.082	-1.058		-.129	-.123	-1.550	.474	2.109	
회복탄력성	-.001	-.001	-.016		-.313	-.290	-3.315**		-.300	-.277	-3.194**	.393	2.545	
정서적지지									.246	.208	2.020*	.280	3.568	
평가적지지									.091	.095	1.128	.416	2.402	
정보적지지									-.146	-.125	-1.251	.298	3.360	
$R^2$	.477				.213				.241				Durbin-Watson	
Adjusted $R^2$	.459				.186				.205				1.763	
F	26.285***				7.782***				6.756***					
Sobel's test Z = 1.754														

\*p<.05, \*\*p<.01, \*\*\*p<.001

1)성별: 남=1, 여=0, 2)학제: 4년제=1, 2·3년제=0, 3)교육경험: 없다=1, 있다=0, 4)가구주: 아니오=1, 예=0

## 6. 가설검증 요약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구 분	내 용	검증 결과
연구문제1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채택
문 제 1	가설1-1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1-2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1-3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문 제 2	가설2-1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2 대학생의 희망과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3 대학생의 낙관주의는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4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문 제 3	가설3-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확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독립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타협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5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직업선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문 제 4	가설4-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확정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독립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4-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타협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5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직업선택태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4-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여도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 IV. 결론 및 논의

### 1. 연구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생 중 응답자 269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때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에서 남학생은 49.8%(134명), 여학생 50.2%(135명)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제는 2·3년제 36.4%(98명), 4년제 재학중인 대학생은 63.6%(171명)이었다. 진로·취업교과목 수강여부는 57.6%(155명)이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수강 대학생은 42.4%(114명)이었다.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 24.5%(66명) 제외 나머지 75.5%(203명)는 가구의 경제를 책임지기 보단 부모님과 동거하며 가구원으로 생활하는 대학생으로 편중되어 있다.

#### 2)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의 차이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에서 ‘2·3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집단이 ‘4년제’ 대학 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여부에서는 비가구주인 대학생이 낙관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3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비가구주인 대학생이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부적응을 완화 시키는 낙관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 비가구주인 대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교과목이 대학생의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데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비가구주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부분에서는 정승원(2023)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체계 부재에 따른 자존감 등 사회적 고립의 문제성에 대해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구주가 아닌 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대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비가구주 대학생이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가정환경, 경제환경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성숙도에서는 비가구주 대학생이 진로타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3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4년제 대학 재학생에 비해 직업선택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3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전공분야의 현장실습 시기가 빨라 전공에 대한 정체성 확인 및 성취감을 겪는 과정에서 2·3년제 대학 재학생이 진로 내적준비가 강하다는 연구결과(박수민, 2013)와 일치한다. 또한 진로·취업 교과목 수강여부에서 수강을 들은 대학생이 비교집단에 비해 진로관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 시키며, 대학생들의 심리적·개인적·행동적 차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희수, 2012; 김미영·이재신·이지혜,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 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는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긍정심리자본의 긍정적인 형성이 개인의 다양한 상황 속 사회적 지지망을 더 많이 지각하는데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는 사회적지지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양성윤, 2017; 박인숙·안성식, 2019; 이유경, 2021; 김혜진, 2022, 이청화, 2022)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의 대학생의 긍정심리기제를 활발하게 작용하여 주변의 사회적지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 자본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주요 영향요인임을 재검증한 것으로,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중요성을 확일 할 수 있었다.

#### 4)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과 희망에서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타협도와 직업선택태도를 제외한 진로성숙도를 포함한 하위요인 3가지(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진로관여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은 진로성숙도를 포함한 하위요인 3가지(진로타협도, 직업선택태도, 진로관여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김민영(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에 있어 희망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유경(202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청화(202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진로결정 과정에 긍정심리자본은 핵심적인 변인임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 5)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희망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정서적지지가 부분매개하고, 자기효능감과 진로확정도 관계에서 정서적지지가 부분매개 하고, 진로타협도에서는 정서적지지의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진로독립도, 직업선택태도, 진로

관여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진로확정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한다는 것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적지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대학생이 높은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와 진로확정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진로타협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한다는 것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타협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중 정서적지지가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 2.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개인의 진로 관련 문제는 개인 내적인 요인 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특성을 구성하였다. 차이검증의 결과 2·3년제 재학생이, 진로·취업교과목 수강 대학생이, 비가구주 대학생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를 위해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진로교과의 양적 및 질적 확대 등 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진로성숙도에서 경제적 활동이나 부담이 적어 대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비가구주 대학생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진로성숙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 가구 형태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시사점은 대학생의 가구형태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진로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진로상담 개발 등의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 지각 수준이 높아지며,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지지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지지의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불확실한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가 기반이 되는 주변의 교수자나 상담자, 교육기관, 가정, 친구 등의 사회적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대인관계 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증진 또는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맞춘 진로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의 급속한 진화 속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사회경험과 경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인지적인 전공지식 습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닌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진로상담 방식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내 4개 대학의 재학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본 연구 결과로 나온 요인들이 전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다양한 표집으로 반복적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변수로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제시하고,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변수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만으로는 진로성숙도를 다 측정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취업시장에서 대학생들의 진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제고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선아. 2023.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연구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우흔. 2022. “대학생의 진로교육 참여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분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진. 2020.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현·박신영. 2019.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만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9(5), 215-238.
- 곽수미. 2019. “우연학습이론을 적용한 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미. 2016. “전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해미. 2015.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직업가치관 및 향후 진로방향과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갑순·박운조. 2021. “코로나 19에 의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1(9), 644-651.
- 김나영. 2022. “유치원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희. 2018. “감정노동전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영·이재신·이지혜. 2015.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3(2), 1-19.

- 김성숙. 2022. “독거노인생활지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훈. 2014. “『국부론』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교육론”. 『教育思想研究』, 28(3), 1-21.
- 김세연. 2023.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중학생 자녀의 진로성숙도 유형 간의 잠재전이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숙. 202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그것의 조절효과”.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선. 2010.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진. 2016.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김우석. 2009.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은주. 2008. “한국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지. 2023.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그것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순차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호. 2013. “사회적 창업과 정신과 사회적 지지가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희, 이장호. 1986. “사회적지지 척도 제작을 위한 예비적 연구”.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학술저널, 143-153.
- 김중운. 2020.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영. 2023. “대학생 3,4학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욱.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진. 2022. “조리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전공몰입, 진로태도성숙

-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희수. 2012. “대학의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미치는 연구”. 「진로교육연구」. 25(1), 73-89.
- 김희선. 1999. “상업계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19.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회적지지와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 2011. “부모 지지,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정혜원. 2022.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주요 설명변인 및 변화양상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3(2), 87-115.
- 박수민.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 2022. “covid-19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코칭적 함의”. 「코칭능력개발지」. 제24권 제3호(통권 제83호) 1229-6597.
- 박인숙·안성식. 2019.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간호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9(2), 27-53.
- 박종욱. 2016. “헤어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따른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현.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이 지각한 우울 및 불안의 양상과 긍정심리자본의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0(2), 51-71.
- 박현경. 2023. “고등학생의 정서지능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선. 2020.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대안학교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경미. 2021.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수준이

-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보람. 2016.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예지. 2016. “미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지은. 2014.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순자. 202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소방원. 2022. “중국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대학생활만족도,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연재. 202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영인. 2022.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성윤. 2017. “사회적지지가 서비스직원의 긍정심리자본, 창의성,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염경혜. 2018.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를 매개로하여”. 서울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명숙. 2015. “한국형에너지그림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삼일·이상아. 2021. “고용상황 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 유은경·설현수. 2015.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조사연구학회」. 16(1), 155-184.
- 유현숙. 2004. “여성의 인적, 사회적, 심리적 자본에 관한 실증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경화. 2020. “보드게임을 활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엽. 2012.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기학·조미랑. 2003.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남녀 간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Vol. 8, No. 3, 161-174.
- 이미경. 2020.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역량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2020.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영.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자. 2023.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 참여동기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매개 효과”.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경. 2022.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선. 2022. “대학생의 뉴커리어 태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자영. 201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임. 201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원. 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청화. 2022.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적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청화. 2022.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인천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08.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넷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언·정윤경·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 01-19
- 장계영·김봉환. 2008. “진로전환검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0(1), 399- 415.
- 장석민·임두순·송병국.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91(05), 1-143.
- 장종근. 2019. “학교장의 감성적 리더십과 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학교 조직효과성과의 구조적 관계”.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진범. 202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분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현정. 202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적응수행의 구조적 관계: 진로포부 매개효과와 학과만족도 조절효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소연. 201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지. 2020.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숙. 2016. “여고생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 및 교사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민철. 2011. “심리적 자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세환. 2019. “중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 2013. “여고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의중·임진영·황매향. 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 「한국초등교육학회」. 24(3), 169-194.

- 채상명. 2016.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협력적  
노사관계와 감정공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유열.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하연. 2021. “대학생용 긍정심리자본 척도 개발”.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경제연구원. 2017. “대졸 청년취업의 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취업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효과성을 중심으로”. KERI Insight, 2017(9), 1-24.
- 한국경제연구원. 2020.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정책연구보고서」. 20(02). 1-93.
- 한국교육개발원. 1992. “진로성숙도 검사 요강”. 한국적성연구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보고서」 1-177
- 허성은. 2022. “취업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연구」 22(09): 1-18.
- 황보민주. 2010. “사회적 지지가 취업기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ustein, D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1), pp. 260-274.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241 - 58.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Behavioral Publications. 1-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s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and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E., & Syme, S. L.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Academic Press
- Cozzarelli, C. 1993.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ping with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224 - 1236.
- Crites, J. O. 1982. Testing for career adjustment and development. *Training & Development Journal*, 36(2), 20-24.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Reading, MA.
- Luthans, F., & Youssef, C. 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 143-160.
-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oing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 Montt, G. 2015.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field-of-study mismatch. Paris, France:OECD.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403-424.
- Seligman M. E. P. 1998.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Pocket Books.
- Skinner, A. S. 1996. *A System of Social Science: Papers Relating to Adam Smith*. Oxford: Clarendon Press.
- Super, D. E. 1951. Vocational adjustment. *Occupations: The Vocational*.

Guidance Journal, 30, 88-92.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185-190.

#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ang, Ji-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maturity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For this study, the data of 269 respondents among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four universities in Jeju were analyzed and processed using SPSS 24.0. As for the analysis method, reliability verificatio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difference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Baron and Kenny's mediating effect procedure.

The main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the group enrolled in "two or three-year universities" recognized relatively higher than the comparative group.

Second, in terms of social support,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with experience in career and employment courses' and 'non-household college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relatively high.

Third, among the sub-factors of college student career maturity, there were differences in career compromise and job selection attitude, and the group enrolled in "two or three-year universities" and "non-household owners" college student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comparative group.

Fourth, i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it was analyzed that among the sub-variabl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hope, and optimism were more aware of social support.

Fifth, the mo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the more positive it had on career maturity.

Sixth,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Put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together, it was verified that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are influential variables in raising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must be increased.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career guidance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maturity, and social support.

**Keywords:** Colleg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부 록>

## 설문지

ID			
----	--	--	--

안녕하십니까?

학업으로 바쁜 중에도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와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4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설문지에 정답은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시하되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2년 12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 김상미

연구자 : 강지희

I. 다음은 응답자 일반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학제는?

- ① 2,3년제    ② 4년제

3.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또는 교육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네 (경험 있음)    ② 아니오 (경험 없음)

4. 본인은 가구주입니까?

※ '가구주' 는 등본상 세대주 말고 실질적으로 해당 가구를 대표하고 경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네    ② 아니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진 로 확 정 도	1	나는 때때로 장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아직 까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				
	2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3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4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5	앞으로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6	나는 미래의 내 직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7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				
	8	나는 아직 까지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지 못했다.				

진 도 독 립 도	9	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신의 직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의 진로문제는 부모나 친구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나 스스로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부모의 충고를 따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직업 선택은 전적으로 내가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누구든지 나에게 조언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진 로 타 협 도	16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종종 '현재 나의 모습'과 직업인으로서의 이상적인 나의모습'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경우 하고 싶은 일(갖고 싶은 직업)이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 과 장래 직장인으로서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서로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세운 진로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직 업 선 택 태 도	22	직업에 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직업선택에서는 보수가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직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세하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직업은 수입과 관련되므로 진로 선택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여러 방면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직업을 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진 로 관 여 도	27	나는 나 자신이나 직업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선택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누구나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졸업 후 뚜렷한 진로를 (대학진학, 취업 등) 원하지만 나는 그 문제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기효능감	1	나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설명하고 납득 시킬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고 개척해나가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희망	6	나의 목표가 언젠가 꼭 달성되리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운보다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언제나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낙관주의	11	일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역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에게는 힘든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회복탄력성	14	나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침착하게 그 상황을 해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사회적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서적 지지	1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주변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 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평가적 지지	8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필요하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정보적 지지	12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주변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주변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대체로 내가 배울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